

박명수·하하의 무인도 생활...안 싸우고 버텨?

‘안 싸우면 다행...’서 케미 기대
김남길·고규필 ‘선발대’ 또 뭉쳐
안정환·이을용 ‘위캔게임’ 승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콤비’들이 방송가에 나란히 귀환한다. 방송인 박명수와 하하, 연기자 김남길과 고규필, 축구스타 안정환과 이을용이다. 각각 예능프로그램을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 축구 국가대표팀 동료로 키워온 우정을 과시하며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겠다고 나섰다. 시청자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함께 누린 콤비들의 ‘추억 여행’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박명수·하하...‘무도’ 조합 어게인

박명수와 하하는 MBC ‘무한도전’에서 쌓은 12년의 인연을 10일 첫 방송하는 MBC 새 예능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로 이어간다. 프로그램은 이들이 무인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담는다. 박명수가 제작진에게 “하하와 하고 싶다”고 직접 추천해 ‘콤비’로 재회하게 됐다.

2018년 종영한 ‘무한도전’을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조합이다. ‘무한도전’에서도 연신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예고편에서부터 “이게 말이 되나?”라며 서로를 타박하기 바쁘다. 프로그램 제목대로 ‘안 싸우면 다행’인 이들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동시에 돈독한 우정과 진솔한 교감의 과정도 담을 예정이다. 박명수와 하하는 그동안 서로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며 ‘돈든한 지원군’을 자처해왔다.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하하와 박명수. KBS 2TV ‘위캔게임’의 안정환과 이을용. tvN ‘바닷길 선발대’의 고규필과 김남길이 ‘콤비’의 우정을 과시하며 예능프로그램에 나선다.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KBS 2TV ‘위캔게임’의 안정환과 이을용. tvN ‘바닷길 선발대’의 고규필과 김남길이 ‘콤비’의 우정을 과시하며 예능프로그램에 나선다.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남길·고규필...시베리아 다음은 ‘바닷길 선발대’

김남길과 고규필은 18일 tvN 새 예능 프로그램 ‘바닷길 선발대’로 다시 뭉친다. 작년 9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여행한 ‘시베리아 선발대’의 시즌2 격이다. 이들은 연기자 박성용, 고아성과 함께 요트에 올라 바다로 나아간다.

김남길은 ‘시베리아 선발대’에 이어 이번에도 ‘남길 픽(Pick)’으로 고규필을 추천했다. “친구 같은 형과 동생 사이”인 이들은 편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전망이다.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SBS 드라마 ‘열혈사제’ 등 다수의 작품으로 쌓은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시청자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고규필은 첫 예능프로그램 나들이로 특유의 위트 있는 면모를 단번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안정환·이을용...승부욕은 나의 ‘힘’!

안정환과 이을용은 2002 한일 월드컵 주역에서 ‘게임 천적’으로 또 만난다. 9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위캔게임’에 동반 출연해 축구 게임으로 승부를 겨룬다. 발로 뛰는 축구 경기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이들이 화면 속에서는 연신 헛발질을 해대며 신선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끝나면 절교할 것”이라며 ‘막말’(?)을 쏟아낼 정도로 막역한 이들의 관계가 무대의 핵심이다. ‘축구스타’다운 타고난 승부욕도 재미를 살린다. 말은 거칠어도 서로를 향한 애정은 역시 질다. 안정환은 ‘위캔게임’으로 예능프로그램에 처음 도전하는 이을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BTS 병역특례 긍정 검토” 박양우 장관도 입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병무청 협의...국민정서도 고려해야”



박양우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에 속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많은 의견이 순수예술이나 체육계처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병무청장과 협의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이다”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다시 소송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 이행 안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또 다시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3월 관련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최근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유승준이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주 L 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

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그는 LA총영사관의 방침에 따라 입국을 포기하려다 법률 대리인단과 논의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정부가 입국을 금지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



유승준

다. 이후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7월2일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채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계속 취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테러리스트나 정치인, 재벌이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연예인에 불과하다”면서 “병역외 자문단으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YouTube ‘성경 기부 경제학’ 3번 보면 반려동물 (개, 고양이) 도 기본소득 150만원 이상 평생 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1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나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APP’
□ 선착순 자동월배이 기부 플랫폼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캠퍼스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취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권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김민정 010-3315-1517 / 송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민 010-4741-7008 ●충청도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김원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대구 권명희 010-4846-4950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천안 김태욱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여천 허현석 010-4707-2659 ●한신 010-5177-9479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수원 황민드래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경기 남부 캠퍼트 010-6806-1931 / 노수필 010-5153-5983 ●영광 교명실 010-5463-6952 ●충북 송종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하위아 윤이나 010-8763-8742

Hiubuntu 하이우분투(주)
1644-6733